

빛의 중심으로 사는 지혜, 행복한 깨달음의 도량

흥천 여래사를 가다

강원도 흥천군 북방면 원소리 200번지에 자리 잡은 여래사는 아주 특별한 도량이다. 여래사로 들어가는 국도변에 선 안내판의 조감도가 하도 장엄해 차를 타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일부러 들리곤 한다. 그러나 아직은 한 채의 법당과 작은 산신각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몇 개와 몽고텐트 두 동이 전부다.

“해피 붓다, 해피 만다라, 해피 코리아. 누구든 깨달음의 중심으로 서 있음을 알게 하는 도량, 행복한 깨달음의 도량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법당에 들러 굵은 초 한 자루에 불을 켜고,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돌로 만든 불단에 가족의 이름을 정성껏 적은 초를 켜고 3배를 한다. 불단에는 항상 밝은 빛을 발하는 초가 켜 있다. 한 순간도 촛불이 꺼지지 않는 빛의 성전이다.

“촛불을 켜는 것은 마음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감지하는 어둠만 어두운 것이라 생각하는데, 마음이 어두운 것이 더 큰 어둠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투쟁심과 탐욕에 사로잡힙니다. 만생명은 밝은 곳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지금 초를 켜 공덕이 늘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동력이 되길 기원 드립니다.”

스님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다음에도 꼭 들리겠다”고 약속을 하며 돌아가곤 한다.

흥천 금학산 자락에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만다라 보궁을 건립하겠다고 원력을 세운 동휘 스님(해피만다라문화원 원장)은 ‘내가 반응하는 만큼 받아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자신에게 보여 지는 것, 느껴지는 것, 들리는 것 등 감각을 통해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밝게 반응하느냐 어둡게 반응하느냐, 절망적이나 희망적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등등.

“그것이 바로 만다라의 도리입니다. 만다라는 깨달음의 눈인데, 자신의 마음으로 그 눈을 떠야 합니다. 촛불법당은 바로 모든 것에 밝게 반응하여 밝은 기운 밝은 생각을 여는 힘을 얻는 곳입니다. 만다라 보궁 역시 깨달음의 행복한 길을 열어가는 도량이기 에 항상 행복과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한 도량은 결국 개인이 만들어야 하므로 이 도량은 함께 가꾸어 가는 성전입니다.”

출가 전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갤러리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동휘 스님은 티베트와 네팔 등지를 순례하며 만다라를 만나 수행의 방향을 결정했다. 만다라를 직접 그리기도 하는 스님은 만다라의 시연이아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좋은 수행법이라는데 확신을 갖고 있다. 만다라를 통한 문화 포교와 수행의 길을 개척하기로 원력을 세운 것이다.



여래사 만다라 보궁 불사를 발원한 동휘 스님과 지역 불자들. 앞줄 오른쪽부터 이하주 하원욱 김경희 동휘 스님 유일주 임명순 이옥란 뒷줄 왼쪽부터 최철원 반중춘 김택환 김형중 강효식 김청민 불자.

동휘 스님은 지난해 대구에서 만다라 그림전을 갖고 불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곧바로 11월 15일 지금의 여래사에서 깨달음의 성전 만다라 보궁 건립 선포식을 봉행했다. 그리고 1년 동안 촛불법당을 완공했다. ‘함께 만드는 도량, 내가 가꾸는 행복’을 지향하는 ‘깨달음의 성전 만다라 보궁’ 불사의 에너지는 동휘 스님과 지역불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에서 솟

‘누구나 해피~’ ‘뭘든지 OK!’ 만다라 수행으로 밝은 생각 촛불법당서 광명의 삶 발원... 24일 꽃산신재로 2단계 불사



동휘 스님이 그린 만다라. ‘부다 라이프’.

아난다. 매월 초하루 보름 불공과 매주 목요일 절야로 진행되는 관음정진과 산신기도에 지역 불자들이 한 명 두 명 동참하면서 스님의 불사 원력을 뒷받침 하는 든든한 힘들이 된

3. 동휘 스님의 원력과 지역 불자들의 신심이 3만㎡(1만여 평)의 태극지(태극문양의 길상이 서린 땅)에 지수화풍공(地水火風空)을 상징하는 5개의 원과 신구의를 상징하는 3층의 탑을 기본 구조로 하는 보궁을 건립하는 단초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보궁 불사의 당면한 목표는 ‘세계만다라 문화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동휘 스님이



깨달음의 성전 만다라 보궁 조감도.



한 순간도 촛불이 꺼지지 않는 여래사 촛불법당.

그런 만다라와 소정하고 있는 각국의 다양한 만다라들을 상설 전시하고 만다라 수행 템플스테이와 샌드만다라 수행 등 각종 만다라 시연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휘 스님은 보궁 건립 선포 1주년을 맞아 두 번째 단계의 불사를 만방에 알리기 위해 10월 24일 오후 3시 꽃산신재를 봉행할 계획이다. 꽃산신재는 보궁이 들어설 도량부지에 세계의 만다라와 다양한색의 꽃을 장엄하고 금학산과 전국의 명사의 산신들에게 보궁 불사가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보살펴 달라는 의미를 담아 봉행하게 된다. 때문에 스님은 산신재를 천지를 진동하는 법고소리와 아름다운 꽃 그리고 장엄한 만다라가 어우러지는 축제로 승화시킬 계획이다.

“꽃은 또 하나의 만다라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향기도 좋지만 꽃 속에는 성주공공하는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도 아름다운 만다라 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미 깨달음의 행복이 갖춰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꽃산신재는 자신이 해피만다라임을 알고 늘 밝은 마음으로 뭘든지 O.K.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것을 서원하고 ‘뭘든지 열수 있는 열쇠’를 하나씩 받는 뜻 깊은 축제가 될 것입니다.”

동휘 스님이 말하는 ‘뭘든지 열 수 있는 열쇠’란 바로 만다라의 장엄한 아름다움처럼 항상 밝고 향기로운 마음자리를 뜻한다. 그러한 마음이면 세상살이에서 부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과 더욱 가까워진 춘천과 흥천, 여래사는 남춘천 IC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대명콘도 팔봉산 유원지 등이 있다. 또 태극문양의 흥천강을 조망하는 태극전망대로 가까이 있다. 여래사를 품은 금학산과 인근의 산세(山勢)가 웅혼하고 그윽하여 오랫동안 대도량의 탄생을 기다려 왔다고 말하는 듯하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정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대한민국 국기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증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증등 육바리밀 만월등(육바리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증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